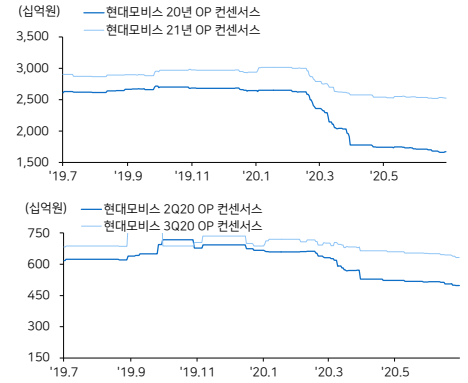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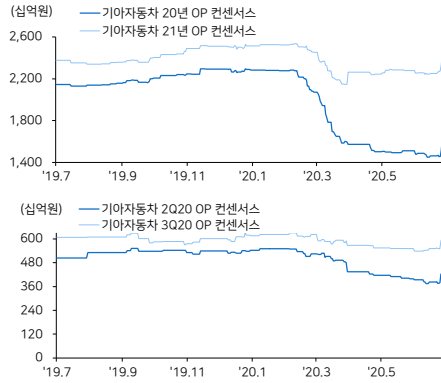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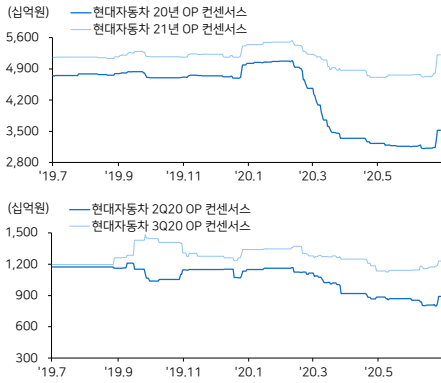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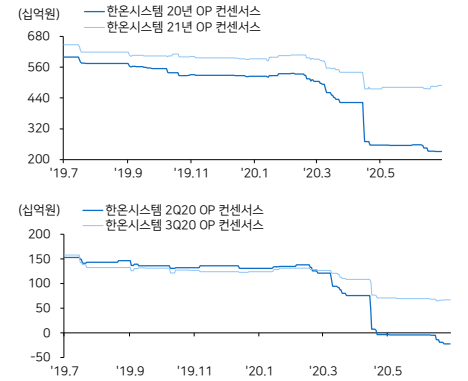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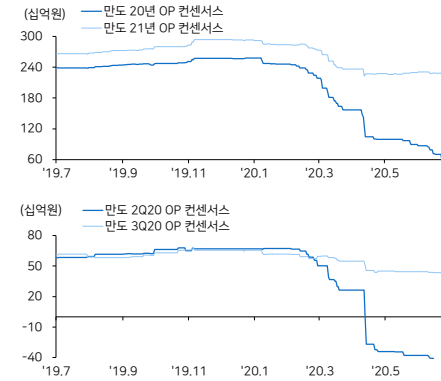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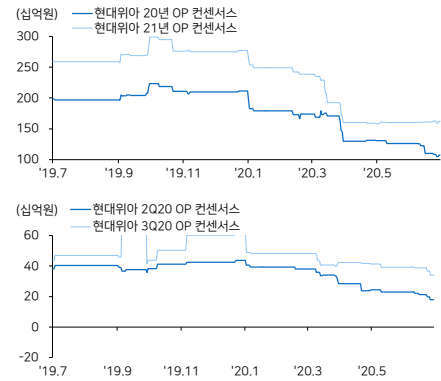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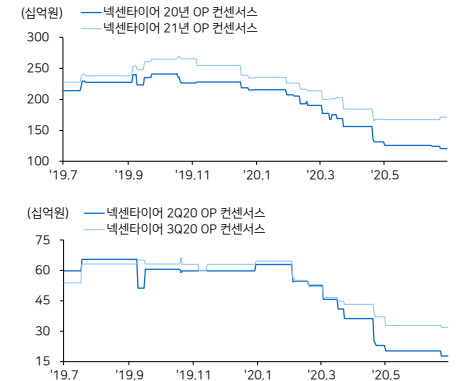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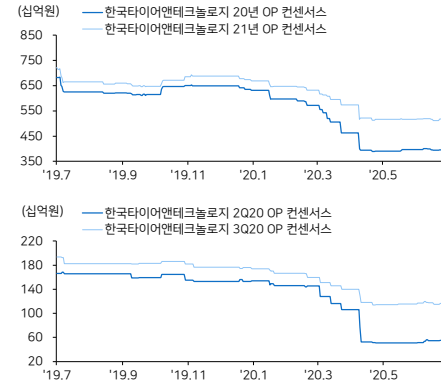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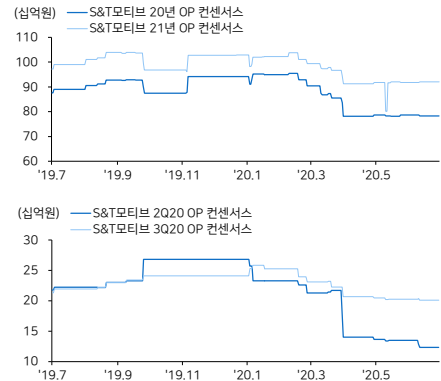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은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기아차 카니발, 하루만에 23006대 계약...쏘렌토 기록 깼다 (ZD넷코리아)

기아차가 지난 28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4세대 카니발의 계약대수가 단 하루 만에 2만3천6대를 기록, 기아차는 이번 사전계약 실적은 국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단시간/최다 신기록이라고 밝혔다.
<https://bit.ly/30cAeF>

현대차 수소버스, 전주에서 상업운영 (조선비즈)

현대차는 전주시청에서 수소버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발표. 현대차가 전주시에 공급하는 첫 수소버스. 현대차와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MOU(양해각서)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매년 15대 이상의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용도로 공급하기로 함.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29/2020072902642.html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
상반기 자동차 신규등록 6.6% 증가..."주요국중 유일하게 늘어" (파이낸셜뉴스)

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보다 6.6% 증가. 이는 전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이 증가한 것.
<https://bit.ly/313r8nv>

테슬라, '코요공'과 손잡고 서비스망 키운다 (전자신문)

올해 상반기 국내 승용 전기자의 43%를 점유하며 고속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달부터 코요공그룹과 손잡고 부족한 서비스망 확충에 속도를 낸. 지난 30년 동안 수입차 사업을 해 온 코요공과 협업,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전략.
<https://bit.ly/39GrDra>

배터리 사업 신모델 개발...현대차와 손잡는 SK이노 (서울경제)

SK이노베이션과 현대차는 배터리를 활용해 다양한 수익을 내는 '바스(BaaS - Battery as a Service)' 관련 협업모델 구축을 논의중. 바스는 배터리 수리, 임대, 충전, 재사용 및 재활용을 포괄하는 서비스 모델.
<https://bit.ly/3gdn2IK>

현대차, 플라잉카 이어 이번엔 '로봇 인력 도입한다' (조선비즈)

현대차는 이달 중순부터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R&D 인력을 채용 중. 주요 분야는 상용 범용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. 현대차는 지난 2018년부터 로봇 관련 R&D 인력을 뽑기 본격적으로 시작.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29/2020072902464.html

한국타이어, 세계 EV 타이어 시장 '선전' (서울신문)

한국타이어는 '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'에 3세대 경주차가 도입되는 '22'·'23 시즌부터 EV 타이어를 독점 공급할 파트너로 선정됨. 대회에 참가하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과 전기차 기술혁신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.
<https://bit.ly/3gb3jAt>

GM, 2분기에 9천억원 손실...미국공장 휴업에도 매출 20조원 (뉴시스)

GM은 코로나 19로 미국 공장들이 오랜동안 휴업해 4월~6월의 2분기 손실이 8억6000만 달러(9600억원)에 달함. 이번 분기에 GM에게 가장 좋은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가 34% 감소.
<https://bit.ly/335MKr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